교육계 비리 뿌리뽑는다

교과부, 인사비리 근절 대책 발표…일부 회의적 반응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교 육관련 각종 비리에 대해 교과부 가 '채찍'을 꺼내 들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비율을 높이고(30% ➡ 40%), 공모제를 확대하며, 비위 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기준을 강 화하기로 했다. 비리나 민원이 자 주 발생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는 특별감사도 실시한다.

'어떠한 대기를 치르더라도 교 원인사 부조리를 척결하고 부패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 지도 나타냈다. 교육계에 널리 퍼 져 있는 부패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채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교과부가불거진 비리와 부패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기계적으로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공직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내 놓 은 수 많은 개선안과 크게 다를바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개선안'을 발표하는 정부부처의 이름이 다를 뿐이다. '개선안'이나 '방 지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공직비리를 대하는 사회 전체의 불감증과 안이한 인식에 있다. 이번만은 정부가 고질병과 같은 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 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는 1월 2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 청 교원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공 무원 인사 및 공사비리, 금품수수 등에 대해 '부패 문화를 청산하겠 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 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미스런 사건들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 적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 르더라도 교원인사 부조리를 척결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임용 등에 있어 인사비리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현장교원의 불만과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교육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교육비리의 핵심인 교육공무원 인사비리를 뿌

리 뽑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인 사비리 근절대책을 수립·보고하 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2월 9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인 사비리 근절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이를위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

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로 놀리고, 외부위원 가운데 일부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교원 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일반적으로 1~2년 정도로 되어 있는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해 소신있는 심의를 유도한다. 인사위원회의 주요 인사사항에 대한

심의기능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 임용 제도를 개선한 다.

교육공무원의 선발, 승진, 전 직,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 및 대상 직위에 대한 주요정보를 누 리집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고, 인사 및 회계 등 주요사항에 대한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의 승진 및 전문직 선발 기회를 제한한다(서 울시 교육청의 경우 제한기간 3 녀)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도 사전에 공개한다. 인사담당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공모제 확대를 통한 능력 중심 의 인사관행을 정착한다.

현재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10%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공모교장의 자격요건인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결원대비 150%로 확대한다.

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도 내놓았다. 먼저 내부신고를 활 성화한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우 대한다. 신고자의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 게 보호하고,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근무평정도 우대한다. 비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물증이

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할 방침이 별로 인 다. ·보고하 이를 위해 교과부 및 시·도교육

이를 위해 교과부 및 시·도교육 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위신고 직 통전화(교육과학기술부 02-2100 -6072)를 연중 운영한다.

없는 경우에도 정황상 비위 개연

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특히 교원 정기인사 전·후 각 1 개월 동안(2월 1일~3월 31일, 8 월 1일~9월 30일)을 내부 비리 고 발기간으로 정해 인사비리를 집중 과리하다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 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파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 고, 징계를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에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징계한다.

종압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 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사비리에 대한 징계수준을 금품수수에 준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투명성 향상도(인사비리 제거를 위한 노력 포함)를 비중 있게 반영하고 언론 보도, 민원 제기 등 비위 개연성 이 짙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교육전문직 임 용시험(이른바 '장학사 시험') 과정의 공정성, 교장·교감 승진임 용 및 배치의 적정성, 교원 및 교 육전문직 근무평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청렴한 업무수행 우리가 먼저

서울 중부교육청,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실시

서울 중부교육청(교육장 김점 옥)은 1월 26일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10년도 반부패·청렴도 제고 직무연수'를 열었다.

교육청은 지난 해 서울시 교육 청 평가 부패방지 최우수기관, 국 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 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선정 등 부 패방지와 청렴도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연수에서 교육청은 김점옥 교육장 의 청렴의지 공유에 관한 특강 등 을 통해 올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연수에 참여한 행정실장들은 청렴선언문 작성, 행정실장 대표의 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공직자로 서의 청렴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 히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시청을 통해 선진국의 청렴행정 사례를 간접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은 이번 행정실장 연수를 시작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 부패·청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원석기자 yws@eduyonhap.com



인상파를 만나다 부산 해운대문화화관(관장: 임종덕)이 주최하는 세계명화 '인상파를 만나다' 체험전시회가 2월 28일까지 28일 동안 해운대문화화관 제1전시실(지하1층)과 제2전시실(2층)에서 열린다. 2010년 겨울방학특선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계명화체험전 전시작품들은 세계 유명 미술관들과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국내 특허기술로 캔버스 천에 복제 후 리터치한 작품 등 30여점에 이르는 인상파 작가들의 명작들과 명화패러디존 등이 전시된다.

"우리도 논문 써요"

서울 서부교육청, 초등학생 소논문쓰기 대회 열어

서울 서부교육청(교육장 이정 곤)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일 간 관내 67개 초등학교 4, 5, 6학 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소논문 쓰기 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대회는 다양성과 다원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가 요 구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력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소논문쓰기'를 활성화하자는 취 지로 계획됐다. 소논문의 주제는 교육적이고 시사적인 내용 가운데 학교별로 자율 결정해 선정한다. 대회는 학교 대회, 지구별 대회, 교육청 대회가 연계돼 순차로 운 영된다. 학교별 대회는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열리며, 학년 당 우수 작품 1편씩을 선정해 각 지구 별 간사학교로 제출하고, 간사학교에서는 학년별 2편씩을 선정해 교육청으로 제출한다. 교육청 대회는 간사학교를 통해 제출된 총 42편의 소논문을 심사해 금상(학년별 1편씩), 은상(학년별 2편씩), 동상(학년별 3편씩), 장려상으로 구분해 시상한다.

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초 등학교 '소논문 쓰기'가 활성화 되고, 초등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와 표현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서울 동미중, 방학 중 자기주도 학습반 운영…효과 높여

서울 동미중학교(교장 백종성) 는 1월4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자기주도적 학습반'을 운영했 다. 학교는 지난해 11월에도 관 할 자치단체인 성동구청의 지원을 받아 오름교육연구소 구근회 소장 을 강사를 초빙해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법 프로그 램'운영을 시작으로 3학년을 대 상으로 한 '1 DAY 영어캠프'와 '방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캠프' 등을 열고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써왔다.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주도

적 학습법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 로 습득할 수 있도록 희망 학생 30 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반(오전 9 시부터 12시)과 오후반(오후 1시 부터 4시까지)으로 나누어 자기 주도 학습반을 운영해 교육의 효 과를 높였다. 자기주도 학습반 운 영의 지도를 맡은 10여 명의 교사 는 과목별로 자기주도적 학습법에 따른 수업시범을 보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노트필기방 법을 지도했다. 교사들은 학생들 의 노트를 걷어 일일이 검사를 하 고 돌려줌으로써 수업내용을 완전 히 자기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정성과 열의를 쏟았다.

장애 영아에게 꿈과 희망을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영아반 문 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제2청사는 의정부 소재 사립 특수학교인 희망학교에 장애영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아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장애를 가진 영아들을 위한 특수반 운영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교육청은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조기교육 지원을통해 장애학생들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덜어주고자 희망학교에 영아반을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영어반이 설치되는 희망학교는 장애이동을 수용하는 사립특수학교로 2001년 개교 이래 유치부 6학급(지적장애·정서장애)을 운영하고 있으며,지난해부터 영어반 1학급을 시범운영하고 있

다.

이번에 3세 미만 영아반이 정식 설치되면서 장애 영아에 대한 교 육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제2청사 최창규 학교 관리과장은 희망학교의 영아반 설 치에 대해 "이번 희망학교 영아반설치로 인해 장애 영아에 대한 조기교육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른특수학교에도 영아반설치를 적극유도해 장애 영아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래승 기자 kls@eduyonhap.com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광고국) 032-433-0633 FAX 032-433-5633 포천지사 031-542-8353 호남본부 062-654-163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천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